

社說

채석장환경성검토

지난 16일 포천시 영종면 양문리 소재 영종농협에서 개최된 금화봉일대(장수·영종) 채석장환경성검토 중간보고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퇴장으로 10분만에 무산됐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금화봉일대 약 56만㎡ 면적에서 현재 채석하고 있는 채석장단지(10업체)로부터 앞으로 10년내 채석할 구역(범위)을 설정하고 채석장단지 주변 산림 생태이동통로를 조성(확보)하고 주변 산림에 대한 완충권역 설정 및 생태이동로 확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채석완료 후 토지를 포천시에서 기부채납받아 주민들의 용도로 개발하여 환경 조차할 계획이며 실제로 석재공원, 환경기초시설, 문화관광시설(조각전시장, 체육시설, 암벽·빙벽타기 국제경기장, 종교·문화시설(공원), 교육시설이나 택지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의 없이 석산확대개발을 시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용역업체가 대기질과 소음진동, 수질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는 사전에 아무 연락이 없었으나 관련 석산업체에는 미리 연락을 해 작업량을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측정한 자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용역을 의뢰한 포천시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채 용역업체가 주민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설명회를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농번기가

많은 주민들의 참석이 불가하다는 점을 이용해 석산 확대개발을 위한 기만술이라며 분개했다.

아울러 채석장환경성검토 대상지역에 있던 모 종교시설이 상당한 댓가를 받고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포천시는 이번엔 실시한 채석장환경성검토는 환경부 산하 환경유역관리청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완충구역 설정 및 생태이동로 확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포천시는 주민들이 석산확대 개발을 위한 용역이라는 주장에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포천시는 채석장환경성검토에 중요한 자료라 될 환경현황에 중요도 개발하여 환경 조차할 계획이며 실제로 석재공원, 환경기초시설, 문화관광시설(조각전시장, 체육시설, 암벽·빙벽타기 국제경기장, 종교·문화시설(공원), 교육시설이나 택지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의 없이 석산확대개발을 시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용역업체가 대기질과 소음진동, 수질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는 사전에 아무 연락이 없었으나 관련 석산업체에는 미리 연락을 해 작업량을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측정한 자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용역을 의뢰한 포천시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채 용역업체가 주민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설명회를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농번기가

郷土원로초대석 ③ ... 前 抱川郷校 掌議 徐榴錫



서 유 석 전 포천향교 장의

‘착한 일을 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라’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관인면에 부임하는 관리마다 악질이 없고 선정을 베풀고 여윌었다 하여 ‘관인(官仁)’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5대째 살고 있는 전 포천향교 장의 서유석(83·사진·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251)을 만난 것은 자택 앞에 20년된 오토나무 아래 평상에서다.

일동면과 관인면에서 공직생활을 통해 성실함으로 소박한 꿈을 만들어온 서 유석은 정년퇴직후에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포천유림을 가꾸는 회원으로 활동해왔다.

일제치하에서 보통학교를 나온 서 유석은 관인면에서는 100여명이 정용에 끌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또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서 강제로 송탄 유를 채취해 갔다고 한다. 송탄유는 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말한다.

해방의 기쁨이 채 가기도 전에 찾아온 6.25전쟁의 피해는 그리 심하지는 않았다고 전하는 서 유석은 관인면 지역에는 군인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일반주민들 사이에 오히려 다툼이 있어서 서로 상처를 내고 때려부수기도 했다고 한다.

관인면은 그후 철원군에 속했다가 다시 연천군으로 그리고 포천군으로 그 소속이 달라졌다고 한다. 현재 관인면에서는 유림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서명원 지회장이 20여년간 서예와 한문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

서 유석은 ‘불태위선(勿怠爲善)’을 家訓으로 삼아 아이들에게 가르쳐 왔다고 하는데 불태위선은 대수 서씨 조상의 유훈으로 ‘착한 일을 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라고 한다.

유연서원 원장으로도 재직했던 서 유석은 용연서원은 이덕형, 조영조 두분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방학때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한문, 서예 등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나온 세월동안 아쉬움에 대해 좀더 공부

부를 했으면 하는 것이다. 특히 한학을 깊이 연구하여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요즘 세대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것은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살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관인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서 유석은 15년간 관인농협 감사 일도 맡아 농업발전이 이바지하기도 했다.

이철우 전 국회의원의 선친과 친구사이로 지냈다는 서 유석은 이철우 전 국회의원의 일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우리사회의 참예한 대립각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육식보다는 채식을 즐겨서 건강하다는 서 유석은 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한다면 우리사회는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의회 27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정밀검토 및 감사기법 위해 1박2일 워크샵 개최

포천시의회(의장 홍성훈)는 오는 28일부터 7월4일까지 2005년도 포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포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난 14일과 15일 1박2일간 축령산 자연휴양림에서 행정사무감사

워크샵을 가졌다. 시의원 13명과 직원 11명 등이 참석한 워크샵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정밀검토 및 감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기법 등 사례에 관한 연구했다.

위원별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산업도시위원회가 지역산업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업무 등 37건을 감사한다. 또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업무 등 32건을 감사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2005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인터뷰

“집행부 견제 잘된다고 안 본다”

전문위원 의견반영 생동감 있는 감사실시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시간이 촉박해 자료준비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도 몇 건을 제외하고는 명쾌하게 해결이 안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전과는 달리 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새로 구성된 의회사무위원회로부터 18일까지 자료를 받아 외부의견을 생동감 있게 반영하여 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점은 무엇인가?

2005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박2일 워크샵을 가졌다. 사업부문 특히 인허가와 관련해 혐오시설이나 공해업소 인허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중점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는 현장확인 감사도 병행하겠다.

중점감사 대상은 송유택개발사업과 관련해 문제되는 완충녹지문제, 도시계획시설규정 적합여부, 수도사업소 소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실태, 오수 및 우수 관로사업 굴착점검, 민원어 많은 산림훼손 복구현황 및 허가와 불허가 사항 등이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허술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은 중 내년 선거를 의식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집행부에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내년에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예년보다 강도 높은 행감이 될 것이다. 조선의원들은 지난 3년 동안 업무를 숙지했기 때문에 이번 행감에 큰 기대를 한다.



이천욱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집행부 견제 시각에 따라 다르다”

민의대변 기관 효율적 행정감사 생산적 의회



이중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검증이 필요한 32개 항목을 도출해 심도 있게 행정감사를 할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허술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선거는 선거고 업무는 업무다.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초의회는 중앙정부의 권력누수 현상과는 다르다. 선거를 의식해 행정사무감사를 허술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선거와 결부시키는 것도 적절치 않다.

4년 임기 중 1년 가까이 남았는데 선거를 의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집행부 견제기능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는 다를 수 있다. 업무평가는 지나고 가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비판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 견제장치는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의원 나름대로 개성이 강하다 보니 견제를 잘 했다 혹은 못했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이 쉽지 않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한다고 해도 견제를 못한다는 시각으로 보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집행부 견제가 떨어진다라는 의견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기자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자단 수준향상

포전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8차 임원회의에서

포전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8차 임원회의가 지난19일 오전10시30분 포전신문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5월16일 개최한 포전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춘계수련대회는 매우 유익한 대회였고 각자를 알 수 있는 장이 되었다며 하반기에는 특별이벤트를 겸한 여행체험 프로그램으로 수련대회를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들은 포전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자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줄것과 아울러 학생명예기자

단도 체험프로그램식으로 기자교육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포전신문이 포천시에서 더욱 정론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자 확보에 주부명예기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결의하기도 했다. 또 각 지부별 활성화를 위해 지부장과 총무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포전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은 오는 8월11일 창립1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오는 7월14일 정기회의에서는 차기 임원진을 선출하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13대 조합장 양영찬 후보 당선

포전농협 창립 회원 30여년 조합원 생활

지난 11일 실시된 포전단위농협 제13대 조합장 선거에서 양영찬(69) 후보가 유효투표의 875표를 얻어 812표를 얻은 박창수 후보를 45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날 투표율은 전체 조합원 2천967명 중 2천475명이 투표에 참여해 83.4%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양 당선자는 34.6%인 857표, 박창수 후보 812표, 조명현 후보 499표, 남영우 후보 189표, 이진석 후보 110표 등을 획득했다.

오는 7월19일 제13대 포전농협장에 취임하는 양 당선자는 포전고교를 졸업한 후 신북면 총무계장을 거쳐 72년 포전농협 창립 회원으로 농협에 발을 디딘 후

포전농협 영농부장과 농협 감사 등 포전농협과 함께 해 온 인물이다.

한편 양영찬 포전농협 당선자는 공약사항으로 ▶정부 비수매감소량 전량 수매, 공동복지리 설치 ▶출산조합원 가정 출산장려금 지급 ▶농협 분점 및 지점에 조합원전용 차량방 개실 ▶사랑방담화, 대의원간담회 정례회 ▶생활법률 및 세무 무료상담 정례회 ▶농기계수리센터 119체제 도입 ▶원로조합원 경로잔치 개최, 건강검진과 문화관광 기회제공 ▶타농협과 통합 혹은 연대 공동구매사업과 판매사업 광역화 추진 ▶포전농협 30년사 발간 등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제13대 포전농협 양영찬 당선자 인터뷰

“농협발전에 기수역할 다 하겠다”



▶당선 소감은

농협장 선거에 3번 출마했는데, 이번엔 당선됐다.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72년 포전농협이 창설될 때 직원으로 참여해 영농부장, 감사 등 30여년 동안 농협에서 근무하면서 농협경영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터득할 수 있었다.

농촌에 대한 애착심이 많기 때문에 농협발전에 기수역할 할 것

이다. ▶농협발전 풍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이 처음 창설 당시만 하더라도 농협직원들의 봉급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낮았다. 봉급 문제는 각 단위농협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 기준에 의해 만들어 시행할 뿐이다.

농협은 농촌이 존립하는 이상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농협은 비영리단체다. 농협이 발전하면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합원들이 내 조합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겠다.

▶조합원을 위한 농협을 만들기 위해 농협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을 확대하고 원로 조합원을 우대하는

사업을 시행하겠다. 또한 조합원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농협을 경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랑방담화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 후 생산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나이가 많아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말에 대해

올해 만69세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단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만 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체력이나 업무추진하는 힘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 못지 않게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경력과 역경을 극복한 사람이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Publication information for Pocheon Shinmu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